

## 영화 <작은 아씨들>의 리메이크 전략: 멀티모달리티를 중심으로\*

박 건 영

경희사이버대학교

조 성 은

한국외국어대학교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미국의 고전 소설 『작은 아씨들』을 영화로 각색한 <작은 아씨들>(1994)과 <작은 아씨들>(2019)을 비교하였다. 특히 시각 이미지가 2019년 작에서 1994년 작과 대비하여 페미니즘을 비롯해 영화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부각했는지 알아본다. 영화는 시청각 자원을 활용한 멀티모달 텍스트라는 매체적 특성을 갖는다. 이에 따라 두 영화의 결텍스트인 영화 포스터 DVD 표지, 예고편, 2019년 영화 개봉에 앞서 출간된 원작 소설의 표지와 영화 텍스트의 시각 이미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한 시각 이미지는 등장인물 개개인과 이들 간의 상호작용, 당대 사회의 모습이며 시각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의 틀로는 크레스와 반 리우웬의 시각 문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1994년 작 영화는 남녀 간의 위상, 가족 구성원의 관계, 다인종·다문화의 묘사에서 새로운 관점보다는 기존의 사회 통념을 나타내었으나 2019년 작 영화는 남성과 여성, 가족, 백인과 유색인종의 모습을 더욱 평등하게 제시하였다. 이러한

---

\* 이 연구는 2025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원연구지원사업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변화는 변화한 사회와 관객이라는 맥락을 반영한 재번역이자 다시쓰기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디어 콘텐츠 장르 변환과 리메이크 제작이 활발한 현재 각색 리메이크 영화를 분석함으로써 문화 산업에서 번역이 갖는 의의를 찾아보았다.

**주제어:** 각색, 리메이크, 재번역, 시각 문법, 페미니즘

## I. 들어가는 글

2019년 미국의 여성 감독 그레타 거윅(Greta Gerwig)이 감독한 영화 <작은 아씨들>(Little Women)은 2019년 크리스마스에 미국에서 개봉한 이래 2020년 6월 기준 글로벌 수익 2억 달러를 돌파해 제작비의 5배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광명동). 또한 한국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해 영화산업이 침체한 와중에도 2020년 2월 개봉 이후 2020년 4월 기준 85만 명이 넘는 관객을 모았다(배종옥, 신용관). 또한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작품상, 여우주연상, 여우조연상, 각색상, 의상상, 음악상의 6개 부문 후보로 오르는 등 전 세계 유수 영화제에서 30개 상을 받고 154개 상에 후보로 오르는 기록을 세웠다(조유경). 특히 25회 크리틱스 초이스(Critics' Choice) 영화상 각색상, 32회 시카고 비평가 협회상 각색상을 받는 등 각색 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작은 아씨들>의 원작은 미국의 여성 작가 루이자 메이 올컷(Louisa May Alcott)이 1868년에 쓴 자전적 소설 『작은 아씨들』(Little Women)로 1933년 처음 영화화된 후 영화로만 8회 제작되었다(손선우). 원작 소설이 그동안 여러 번 영화로 각색되고 리메이크되었는데도 거윅 감독의 작품이 비평가 상업의 두 측면에서 모두 호평을 받은 이유로 여성 4명을 주인공으로 하는 원작의 내용을 현대의 여성상에 맞게 각색한 데 돌 수 있다. 그 이전에 원작이 영화화된 사례인 질리언 암스트롱(Gillian Armstrong) 감독의 1994년 작품은 할리우드(Hollywood)에서 여성 제작자·감독·각본가가 제작해 화제가 되고 대사에 여성의 참정권, 진보적 여성 교육 등을 담아 페미니

즘 영화로 일컬어졌다. 동일한 제작자 에이미 파스칼(Amy Pascal)은 20여 년이 지난 후 ‘할 말이 달라졌을 것 같으니 새로운 세대를 위해 다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2019년의 리메이크 제작을 추진했고 거위 감독이 직접 각색을 맡았다. 거위 감독은 <작은 아씨들> 이전에 <프란시스 하>(Frances Ha), <레이디 버드>(Lady Bird) 등 여성 주인공의 성장 과정을 다룬 영화를 주로 연출했고 2023년 영화 <바비>(Barbie)에서도 전통적 여성의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신정은). 거위 감독은 <작은 아씨들>의 각색에서도 성인이 된 자매의 모습을 그리려 했다고 밝히고 원작의 플롯에 현대적 요소를 가미해 작품을 재해석했다. 거위 감독은 교육적 목적이라는 전제하에 누구나 각색 각본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올리고 작품에서 강조하려 했던 점과 원작과 유사한 점 등을 보는 이가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Arthur). 또한 34분 길이의 부가 영상 “새로운 세대의 작은 아씨들”(New Generation of Little Women)에서는 1994년 영화의 제작자이기도 했던 파스칼과 거위 감독, 주연배우가 인터뷰를 통해 왜 <작은 아씨들>(1994)이 상영된 지 25년이 지난 후 2019년도에 영화 <작은 아씨들>을 다시 제작하고자 했으며 어떤 점을 눈여겨보아야 하는지를 관객에게 설명한다.

2019년도 영화의 제작자와 감독은 공통으로 이 영화가 이전과 다른 관점에서 원작 소설을 재조명했으며 1994년 영화에서는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새로운 세대에게 원작을 새롭게 해석해서 전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제작자는 부가 영상의 서두에서 “그레타(감독)는 삶에서 여성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았다고 언급한다(네이버 시리즈온). 이들이 강조하는 1994년 작과 2019년 작의 차이점은 여성성과 남성성, 여성의 경제 능력, 부모 자녀와 부부의 관계, 다인종·다문화성 등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묘사로, 이는 이전과 다른 시각에서의 재번역으로 볼 수 있다.

소설을 각색해 영화화하는 것은 소설의 언어 기호가 영화의 시청각 기호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야콥슨(Jakobson)이 말한 기호 간 번역(intersemiotic translation)의 사례로 볼 수 있다(Munday 9). 이러한 관점에서 영화가 다른 시대 및 문화에 따라 새로 제작되는 리메이크는 원작 소설의 재번역이자 다시쓰기로 규정할 수 있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작은 아씨들』을 각색한 영화 중 가장 최근작이자 제작자가 동일한 두 작품을 분석한다. 1994년 영화 <작은 아씨들>과 2019년 영화 <작은 아씨들>을 원작의 리메이크 영화이자 재번역으로 보고 두 영화의 결텍스트와 텍스트의 시각 이미지를 분석하여 각 영화에서 어떤 면을 부각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시청각적 자원을 사용하는 멀티모달 텍스트(multimodal text)인 영화의 매체적 특성을 고려해 멀티모달리티(multimodality) 요소 중 시각 이미지가 현대적 각색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분석하고자 하며 분석의 틀로는 크레스와 반 리우웬(Gunther Kress and Theo van Leeuwen)의 시각 문법(visual grammar)을 주 분석의 틀로 삼아 분석할 것이다.

## 2. 이론적 배경

### 2.1 각색과 리메이크

각색(adaptation)은 오랜 역사를 지니며 오늘날 소설, 영화, TV 드라마, 웹소설, 웹툰, 게임 등 여러 장르와 플랫폼에 걸친 각색 작품을 볼 수 있다. 각색의 사전적 정의 첫 번째는 “문학 작품을 희곡이나 시나리오로 고쳐 쓰는 일”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번역학에서 각색은 “원작의 풍속, 인명, 지명 등을 시대나 풍토에 맞게 바꾸어 고치는” ‘번안’의 의미로도 사용되나(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본 논문에서 정의하는 각색은 야콥슨이 정의한 기호 간 번역, 즉 기호 간 전환의 경우이다. 각색을 이론화한 허천(Linda Hutcheon)은 각색을 ‘다른 작품을 치환하는 창의적·해석적 행위’이며 ‘복제가 아닌 반복으로 배경을 의식적으로 업데이트·변화시키며 변화를 각색에서 불가피한 요소’라고 정의하고, 재해석과 재창조를 수반하는 창작 과정이라고 하였다(8-9).

리메이크(remake)의 사전적 의미는 ‘예전에 있던 영화, 음악, 드라마 등을 다시 만

드는 것'으로 전체적 줄거리나 제목 등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리메이크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새로운 등장인물을 출연시키고 시대에 맞게 배경을 적용하는 등 부분적 수정을 가하기는 하지만 원작의 의도는 존중된다(이문행 18). 영화에서 리메이크는 각색, 오마주(homage), 헌정(tribute) 등과 혼동되며 그 정의를 명확히 하기는 쉽지 않으나 일반적으로는 원래의 줄거리를 다시 만드는 시대에 맞춰 업데이트하는 것(이자혜 94), 혹은 이미 만들어진 영화를 줄거리와 인물을 바탕으로 새롭게 각색하여 다시 제작하는 것으로 시대와 공간의 이동으로 인해 내용과 캐릭터의 수정이 필요하기에 각색의 개념을 포함해야 하며 사실상 각색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이정국 260). 대표적 각색 연구자 허천도 각색을 과정이자 산물로 정의하고 영화, 연극을 비롯해 영화 리메이크도 각색의 범주에 포함했다(Hutcheon 9).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두 편의 영화를 원작 소설의 각색이자 리메이크로 규정하기로 한다.

이처럼 리메이크와 각색을 동일 개념으로 상정하고 각색을 한 매체가 다른 형태의 매체, 한 기호 체계에서 다른 기호 체계로 전환되는 기호 간 번역이라 할 때 리메이크 역시 한번 각색된 작품을 다시 각색한 기호 간 재번역(intersemiotic retranslation)으로 규정할 수 있다(Evans 10). 번역학 사전에서 재번역(retranslation)은 동일 언어로 번역된 작품을 다시 번역하는 행위나 번역 텍스트를 뜻하며 현재 재번역의 범위는 동일 언어 간 번역과 기호 간 번역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다시쓰기를 아우르는 것으로 정의된다(Tahir Gürçağlar 484-85). 이처럼 오늘날 번역학에서 재번역은 문학번역뿐만 아니라 영상 텍스트 번역도 아우르기에 리메이크 영화는 원작을 재번역한 기호 간 번역으로 볼 수 있으며(Evans; Chan; Wong; Gottlieb) 그간 소설 『작은 아씨들』이 여러 차례 영화화된 리메이크 사례 역시 원작의 재번역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게 리메이크 영화를 재번역으로 바라볼 때 르페브르(Lefevre)의 '다시쓰기(rewriting)'를 적용할 수 있다. 다시쓰기는 원작을 목표 문화권의 맥락에 따라 특정한 의도나 방식으로 다시 쓰는 것이다(이지영 82). 다시쓰기의 개념은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을 배경으로 등장했는데 이때 번역은 목표 문화권의 문화, 역사, 관습 등 사회·문화적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되며 번역 결과물 또한 수용 사회의 특정 사회적

맥락에서 분석된다.

번역학에서 다시쓰기는 텍스트의 재맥락화(recontextualization)라는 관점에서 『셀프헬프』의 한국어 출판 번역 사례를 새로운 맥락에서 새로운 독자들을 위한 텍스트로 재형성했다고 본 연구, 『작은 아씨들』을 ‘페미니즘 시각에서 문학 작품 다시쓰기’의 관점에서 실천적 재번역을 수행한 사례로 분석하고 정치·경제·사회적 변화가 이러한 결과물을 생산했다고 본 연구, 한국의 문학 정전 번역 사례 중 『아큐정전』 한역본의 시대별 다시쓰기 양상을 분석하고 주 독자층인 청소년 수용자의 수용성을 고려해 가독성이 향상되었다고 해석한 연구 등 고전으로 알려진 작품의 재번역 사례에 적용되는 한편(강지혜; 마승혜; 이지영) 멀티모달 텍스트로도 확장된다. 영화 포스터에 재현된 이미지를 재맥락화로 설명한 연구, 온라인 뉴스 사이트의 번역을 멀티모달 재맥락화(multimodal recontextualization)으로 규정한 연구(신나안; Altahmazi)가 그 예이다.

위의 사례연구는 공통으로 분석 텍스트에 사회·문화적 맥락이 반영되었다고 보고 번역에서 다시쓰기란 곧 재맥락화임을 논하며 작품이 번역 시기에 따라 목표 문화권의 상황에 맞추어 다시 번역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1994년과 2019년에 제작된 두 편의 리메이크 영화 <작은 아씨들>을 원작 소설을 상황에 맞게 다시 쓴 재번역으로 보고 어떠한 차이점이 나타나는지 분석하기로 한다. 언어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소설을 언어 텍스트와 비언어 텍스트가 결합한 영화로 각색한 사례임을 고려해 멀티모달리티, 그중에서도 시각 이미지를 중심으로 분석하겠다.

## 2.2 멀티모달리티와 시각 문법

서로 다른 매체 간의 영향 관계 연구가 활발한 현재 각색은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으며 문학 작품의 영화화는 서로 다른 코드와 기호 시스템을 지니는 매체 사이의 번역 문제를 논의하기에 적합한 장이다(박지희 407). 소설이 언어라는 한 가지 기호로 이루어진 데 반해 영상물은 대사, 음향, 움직이는 이미지 등 여러 가지 기호가 하나의 통합된 텍스트로 구성되기 때문에 멀티모달 텍스트로도 불리며 이를 분석하는 이론적

틀로서 멀티모달리티가 대두되었다.

멀티모달리티는 1990년대 후반 이래 굿윈(Goodwin)이 민속방법론과 대화 분석 분야, 크레스와 반 리우웬이 사회기호학 분야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개념으로 현재 기호학, 언어학, 미디어학,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사용된다(Jewitt et al. 1-2). 크레스와 반 리우웬은 멀티모달리티를 ‘기호 산물이나 사건을 구성할 때 다양한 기호 모드(mode)가 결합하는 방식으로 기호 모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모달리티와 모드는 ‘기호 자원(semiotic resources)’으로 의미 형성의 수단이며 멀티모달리티는 인간이 다양한 의미 형성 수단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Multimodal 20-22).

멀티모달리티의 세 가지 전제는 첫째, 다양한 기호 자원이 의미를 형성하고, 둘째, 이를 통해 다양한 모드로 구성된 총체가 생산되고, 셋째, 의미를 연구하기 위해 한 총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모든 기호 자원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Jewitt et al. 2-3).

페레스-곤살레스(Luis Pérez-González)는 영상 텍스트에서는 기호 자원의 상호 의존성을 더 잘 이해해야 한다며 영상 번역에서 텍스트 내의 다양한 기호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이론적 틀인 멀티모달리티를 연구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185-87). 카인들(Klaus Kaendl) 역시 번역에 있어서 멀티모달리티 요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어와 그 기능뿐 아니라 음악, 이미지는 물론 관련된 하위 모달리티의 기능과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하며 음성 언어, 문자 언어, 이미지, 음악의 모드 아래 음량, 속도, 서체, 배치, 색, 선, 형태, 리듬, 선율 등의 하위 모드(submode)를 멀티모달리티 요소로 제시하였다(63-65). 이에 더하여 영상 텍스트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시각 요소로는 거리, 앵글, 프레임, 클로즈업, 줌, 카메라 이동, 등장인물의 공간적 관계, 동작의 부재, 특정 장면의 길이 등을 들 수 있다(Bateman and Schmidt 9-17).

본 연구는 각색 리메이크 영화 두 편에서 위의 멀티모달리티 요소 중 시각 이미지를 예 초점을 두고 이들 요소가 1994년 영화와 2019년 영화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분석하고자 크레스와 반 리우웬의 시각 문법을 분석의 틀로 삼았다. 시각 문법은 할리데이

(Halliday)가 체계 기능 언어학(systemic functional linguistics)에서 제시한 언어 분석의 틀을 시각 기호에 적용한 것이다. 크레스와 반 리우웬은 언어와 마찬가지로 시각 이미지도 문법을 사용해 사회적 맥락에 따른 내용과 형식을 분석할 수 있는 사회 기호 체계로 인지하여 색, 앵글, 프레임, 구성 등에 기반을 둔 시각 문법을 소개하였다(최희경 446). 이들은 할리데이가 의사소통 기능을 하는 기본 요건으로 제시한 관념적 메타기능(ideational metafunction), 대인적 메타기능(interpersonal metafunction), 텍스트적 메타기능(textual metafunction)의 세 가지 메타기능이 언어를 비롯한 모든 기호 형태에 적용 가능하다고 하였다.

관념적 메타기능은 시각 기호가 표현하는 체계 외의 세계에 있는 대상과 그 관계를 나타냄을 뜻한다(Kress and van Leeuwen, *Reading Images* 16). 관념적 메타기능의 주요 개념인 서사 재현과 개념 재현은 영상물에서 화면에 비추어지는 인물 또는 대상인 참여자의 동작, 시선, 표정, 몸짓, 참여자의 배열과 전체·부분, 크기, 위치, 색, 조명, 몸짓, 상징적 가치와 연관되는 요소와 소품으로 제시된다(박건영 55). 대인적 메타기능은 수신자, 시청자, 나타내는 대상 사이에 일어나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사회적 관계로 보여주는 기능이다. 예를 들어 영상 텍스트의 시각 이미지에서는 카메라의 위치, 카메라 및 등장인물의 움직임에 따라 시청자와 이미지에 묘사된 대상 간의 관계가 형성되며 대상과 시청자와의 관계 및 등장인물과의 관계가 변화한다. 대인적 메타기능은 영상에서 참여자의 시청자 응시 여부로 접촉, 참여자와 시청자 간의 거리로 사회적 거리, 각도와 눈높이로 주관성과 객관성, 색의 채도·수·보정 유무, 배경, 세부 묘사, 명암, 조명 등으로 모달리티를 구현한다(박건영 60). 텍스트적 메타기능은 모든 요소가 일관성 있는 ‘텍스트의 세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하며 이때 시각 문법은 다양한 자원을 통해 다양한 텍스트적 의미를 나타낸다. 영상 텍스트의 경우 대상 이미지와 카메라의 움직임에 따라 동적인 구성을 형성할 수 있는데, 텍스트적 메타기능이 영상물에서 구현되는 방식으로는 이미지의 배치를 통해 나타나는 정보 가치, 요소 사이의 선이나 공간 존재, 요소의 색·모양 등의 차이, 요소의 색·모양 등의 연속성이나 유사성으로 제시되는 프레이밍, 이미지의 크기·위치·색·명도·선명도 등의 현저성이 있다(박건영 64).



멀티모달 텍스트에서 기호 간 상호작용을 분석한 번역학 분야 연구로는 뮤지컬 번역역과 만화 번역 등이 있으며(홍승연; Borodo), 멀티모달 문체론(multimodal stylistics)에서는 각색 텍스트의 멀티모달 요소를 멀티모달리티 개념과 문체론을 적용해 분석한다(Francesconi; McIntyre). 또한 도서 표지, 영화 포스터, 각색 사례 등을 시각 문법으로 분석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졌다(박건영; 선영화; 신나안, 신진원; 이경희; 이상반; 이선우; 최희경). 책 표지와 영화 포스터 분석이 주를 이루던 연구의 흐름이 각색 사례로 확장되는 추세이며 본 연구는 두 영화의 결텍스트와 텍스트의 멀티모달리티 요소 중 정적 시각 이미지와 동적 시각 이미지 모두를 분석한 데에서 차별점을 둔다.

### 2.3 결텍스트

결텍스트(paratext)는 프랑스의 문학 이론가 주네트(Genette)가 문학 텍스트에 대해 제시한 개념이다. 주네트는 책의 본문 텍스트 외의 표지 문구, 서문, 서평, 관련 기사, 인터뷰 등을 결텍스트로 지칭하고 독자를 책의 본문 텍스트로 인도하는 문턱(thresholds)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Batchelor 9). 결텍스트는 주변텍스트(peritext)와 바깥텍스트(epitext)로 분류할 수 있는데 주변텍스트는 제목, 표지, 장 제목, 역자 후기, 저자 서문, 각주 등 본문을 제외한 나머지 구성 요소이며 바깥텍스트는 저자 및 역자 인터뷰, 일기, 편지 등 책과 물리적 거리가 있는 관련 텍스트이다(정하은 27).

결텍스트가 관객의 영화 감상에 중요한 자료인 데 반해 번역학에서 결텍스트 연구는 문학번역의 결텍스트에 집중하였다. 주네트의 결텍스트 분류를 영상 텍스트에 적용할 때는 저자의 의도와 공간적, 시간적 분류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윤미선 168). 그러나 배칠러(Kathryn Batchelor)는 저서에서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비디오게임을 비롯한 디지털 텍스트와 관련된 유형의 결텍스트 목록을 제시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분석을 위한 결텍스트 선정에 참고하였다. 배칠러가 제시한 영상 텍스트의 결텍스트로는 포스터, 간판, 예고편, 오프닝 크레딧, DVD 표지 및 기타 포장재, DVD 부가 영상, 속편, 팟캐스트, 인터뷰, 웹사이트, 스포일러, 요약편, 로고

방송이나 음악,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상품과 장난감, 대체현실게임, 스핀오프 게임, gif 동영상, 인터넷 밈, 팬 영상, 블로그, 리뷰, 관객 토론, 팝업 광고, 인터넷상의 해설, 실시간 트위터, 게임 잡지, 게임 전략 가이드, 모드칩, 팬 제작 게임 등이 있다(59).

본 연구에서는 위의 결텍스트 중 분석 대상 영화 두 편과 관련된 결텍스트인 영화 포스터, DVD 표지, 예고편, 2019년 제작 영화의 개봉에 앞서 새로이 출간된 원작 소설의 표지를 분석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분석 텍스트 및 분석 방법을 소개한다.

### 3. 분석 텍스트 및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분석 대상 텍스트는 미국의 여성 소설가 올컷이 1868년에 발표한 자전적 소설 『작은 아씨들』(ST)과 1994년에 미국의 여성 감독 암스트롱이 연출한 영화 <작은 아씨들>(TT1), 2019년에 미국의 여성 감독 거윅이 각색 및 연출한 영화 <작은 아씨들>(TT2)이다.

원작 소설은 미국 문학의 고전이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이야기이다. 소설의 1부는 남북전쟁 당시 미국의 평범한 가정에서 네 자매 멕(Meg), 조(Jo), 베스(Beth), 에이미(Amy)가 1년간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며 성장하는 과정을 묘사하며 『천로역정』의 틀 안에서 이들이 환경과 성격을 극복하고 1년 후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내용, 2부는 3년의 세월이 지나 성장한 이들의 결혼 생활과 배우자를 만나는 과정 등을 담고 있다. 표면적 플롯은 이처럼 19세기가 요구하는 여성상에 대한 교훈서지만 심층적 플롯은 여성의 꿈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습에 대한 우회적 비판을 담고 있어 150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 각색되고 있다(우승정 94).

여성 감독 암스트롱과 거윅은 각각 1994년과 2019년에 원작 소설을 각색해 동명의 영화로 연출했고 두 영화 모두 여성 제작자와 감독, 각색가가 현대적 시각에서 원작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알려져 있다. 거윅 감독은 “19세기 여성도 현 21세기 여성과 다르지 않은 고민을 했기에 그때의 언어를 지금의 언어로 각색하는 과정에서 부담을 덜

느낄 수 있었다”고 밝혔다(이주현). TT1과 TT2는 모두 여성주의 영화를 만들어 온 여성 감독이 연출했으며 TT1의 여성 제작자는 새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TT2를 기획했다. 이러한 면에서 본 연구는 두 영화를 ST의 각색 리메이크이자 재번역으로 규정하고 비교한다. TT1과 대비하여 TT2 감독의 각색 의도와 해석을 보완 및 강조한 멀티모달리티 요소를 분석하고자 두 영화를 분석 대상으로 택했다.

4장에서는 ST의 내용이 TT1과 TT2의 결텍스트 및 텍스트에서 어떻게 재현되며 이에 사용된 멀티모달리티 요소와 양상은 무엇인지 찾아보았다. 분석한 결텍스트는 TT1과 TT2의 영화 포스터, DVD 표지, 예고편, 영화 개봉에 앞서 새로이 출간된 ST 표지이다. 텍스트에서는 본 연구에서 초점을 둔 주제인 남녀의 묘사 및 남성성과 여성성, 여성의 직업, 다인종·다문화성 등을 TT1과 TT2에서 멀티모달리티 요소로 어떻게 나타냈는지 영상을 비교 분석하였다. TT1과 TT2가 어떤 면에서 원작의 내용을 유사하게 또는 다르게 재현하는지 비교하기 위해 소설의 구성 요소인 인물, 배경, 사건을 기본 분석 단위로 설정하고 이를 영상에서 구현한 시각 이미지를 앞서 2장에서 언급한 시각 문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4. 분석 결과

### 4.1 결텍스트

본 장에서는 TT1과 TT2의 결텍스트를 비교하여 TT2에서 어떤 멀티모달리티 요소, 특히 시각 이미지가 두드러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 대상 결텍스트는 영화 포스터, DVD 표지, 예고편, 재출간된 ST 표지이다.

#### 4.1.1 영화 포스터

TT1과 TT2의 영화 포스터는 이미지와 문구에서 아래의 차이점이 나타났다.

〈그림 1〉 미국 현지 영화 포스터



〈그림 1〉의 왼쪽 TT1 포스터는 주인공 조를 중심으로 네 자매와 어머니가 눈 속에서 함께 웃는 이미지를 보여준다. 1부와 2부로 구성된 ST의 시작과 끝의 시간적 배경이 크리스마스이고 가족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라는 특징을 살려 TT1과 TT2는 모두 크리스마스에 개봉되었다. TT1은 제작자, 감독, 각색자가 모두 여성인 드문 사례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이야기는 흥행이 잘 안되던 1994년 당시 분위기에 따라 가족 영화로 홍보되었다(손선우). 이와 함께 인물의 뒤편에 환하게 불빛이 밝혀진 집의 이미지를 보여주며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가족의 분위기를 강조한다. 홍보 문구는 “세대를 걸쳐 가슴속에 살아있는 이야기가 크리스마스를 맞아 영화로 상영됩니다”라며 관객에게 친숙한 내용임을 알려준다. 제목도 빨간색의 장식적 글자체를 이용해 따뜻한 느낌을 주며 크리스마스를 연상시킨다. 이에 반해 TT2의 포스터에서는 하얀색 고딕체로 제목을 써서 고전적이거나 따뜻한 느낌보다는 현대적 느낌을 준다. 등장인물 이미지에는 어머니의 모습은 없고 네 자매가 모두 오른쪽으로 시선을 두고 창밖을 바라본다. 시각 문법에 따르면 문자 텍스트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향하는 서구에서 이미지의 왼쪽은 과거, 오른쪽은 미래를 의미한다(Machin 139). 즉 TT2 포스터에서 네 자매는 이전 세대와 분리되어 있고 가정 안이 아닌 밖을 바라봄으로써 현재 자리한 가정 안이 아닌 미래의 넓은 세상을 지향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광고 문구도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세요”라며 관객에게 독립된 개인으로서 주체성을 가지라고 제안하므로 영화에서 각 인물의 독립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4.1.2 DVD 표지

TT1과 TT2의 DVD 표지는 영화 포스터보다 더욱 차이점이 두드러진다.

<그림 2> 미국 발매 DVD 표지



<그림 2> 왼쪽 TT1 DVD 표지는 <그림 1>의 TT1 영화 포스터와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고 제목과 문구는 녹색의 장식적 글자체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자아낸다. 문구는 “올해 최고의 가족 영화”로 가족을 중심으로 한 영화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다. 반면 오른쪽의 TT2 DVD 표지는 영화 포스터와 달리 주인공 조 혼자 정면으로 시청자를 응시하는 이미지를 사용한다. 이미지 속의 인물이 이를 바라보는 관객을 마주 보는 시선을 시각 문법에서 “요구(demand)” 시선이라고 일컫는데 이미지 속의 인물이 바라보는 이와 가상의 관계를 형성해 보는 이에게 어떤 행동을 취하게 한다(Machin 111). 조의 이미지는 ST의 내용으로 흔히 알려진 가족에보다는 독립된 한 여성의 당당한 이미지를 전달한다. 또한 “올해 최고의 영화”라는 문구와 함께 ‘가족’이라는 단어 대신 감독의 이름,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른 분야를 언급하며 영화 자체의 인지도와 성과를 강조한다. 대개 영화가 개봉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DVD가 발매된다는 점에서 DVD 표지는 영화 상영 후 더욱 특징으로 두드러지거나 부각하고자 하는 점을 반영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DVD 표지의 변화는 의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4.1.3 예고편

TT1과 TT2의 예고편도 <그림 3>과 같이 각각 본편의 다른 부분을 강조한다.

〈그림 3〉 예고편 시작 부분



<그림 3>의 왼쪽은 TT1의 예고편 시작 장면이다. 마치(March) 가의 건너편에 사는 로렌스 가에서 로리(Laurie)와 가정교사 브룩(Brook) 씨가 마치 가를 바라보는 장면으로 로리가 “저 집 여자아이들은 종일 뭘 할까요?”라고 하자 브룩 씨는 “여성의 신비로운 삶에는 베일이 드리워져 있으니 방해하지 않는 게 좋아”라고 말한다. 남성의 시각에서 바라본 숨겨진 여성의 이미지와 함께 대사가 남성에게 신비로운 존재로서의 여성성을 부각한다. 이에 반해 TT2의 예고편은 로리가 네 자매의 이름을 부르고 자매들의 얼굴을 빠르게 보여준 후 <그림 3>의 오른쪽에 보이는 성인이 된 조가 달러가는 장면, 이어서 조가 숲속을 달러가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소설을 쓰고 있어요. 저와 자매들에 관한 이야기예요”라는 조의 내레이션이 들린다. 이처럼 TT2의 예고편은 달러가는 조의 역동적 이미지와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며 시작하는데, 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달러가는 이미지는 <그림 1>의 TT2 포스터와 동일하게 인물의 미래 지향성을 나타낸다. 거위 감독은 인터뷰에서 “어디론가 향하는 여성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며 원작의 작가인 울컷 역시 “달리고 글쓰는 여성”이었기에 “달리기가 단순히 달리기 이상을 의미한다 생각했고 그 의미를 전하고 싶었다”라고 말했다(이주현). 따라서 TT2의 시작 부분 장면이기도 한 예고편의 해당 장면은 감독이 전달하고자 하는 진취적 여성의 이미지를 관객에게 제시한다.

#### 4.1.4 재출간 ST 표지

TT2의 개봉에 맞추어 재출간된 ST 표지는 TT2에 등장하는 조의 책의 이미지와 동일하여 TT2의 결텍스트로 기능한다.

〈그림 4〉 재출간된 ST와 TT2 속 책의 이미지



〈그림 4〉는 미국의 아브람스(Abrams) 출판사가 TT2 개봉 1개월여 전인 2019년 11월 새로이 출판한 ST의 이미지와 TT2 오프닝 타이틀에 나타난 조의 책의 이미지이다. 2019년 재출간된 ST는 오른쪽 이미지와 같이 TT2 오프닝 타이틀과 엔딩에서 나타나는 조의 책과 동일한 이미지로 제작되어 영화 속 조의 책을 관객에게 가공이 아닌 현실의 것으로 전달하며 TT2의 해석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책 속에는 TT2의 흑백 스틸 컷을 33장 담고 있으며 피지에서도 영화 속 조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위 그림 왼쪽인 피지 앞면에서는 출판사 방문 후 거리를 달려가는 조의 역동적 이미지, 위 그림 가운데인 피지 뒷면에서는 책상 앞에 앉아 생각에 잠긴 조의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ST의 내용으로 널리 알려진 따뜻한 가족애와 소녀들의 성장기가 아니라 TT2에서도 강조된 주인공의 진취적 모습과 고뇌에 초점을 맞춘다. 피지는 독자의 구매를 유도하고자 책에서 홍보하는 핵심적 부분을 담은 결텍스트임을 고려할 때 재출간된 ST는 TT2의 주제를 더욱 강조하는 결텍스트로 작용한다고 하겠다. 2019년 출간된 ST는 TT2 개봉 이후인 2020년 6월 27일에는 미국의 온라인 도서 판매 사이트 아마존(Amazon) 베스트셀러 전체 순위 8,581위, 어린이 명작 261위, 어린이 대상 1800년대 미국 역사 소설 부문 22위를 차지하였다. 미국뿐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형태로 출판되었는데 한국의 경우 대표적 온라인 도서 판매 사이트인 인터넷 교보문고에서는 2020년 상반기 베스트셀러에 포함되었고 또 다른 온라인 도서 판매 사이트 알라딘에서도 2019년 6월 넷째 주 고전 부분 주간 18위에 오르고 종합 부문 10위 권 안에 6주간 머물렀다. 이에 따라 원작 소설을 해당 도서

를 통해 읽는 독자에게 조를 포함한 TT2 등장인물에 대한 이미지가 각인되며 아직 TT2를 보지 않은 독자도 영화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원작을 TT2의 해석에 가깝게 받아들이는 효과가 발생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TT1과 TT2의 결텍스트인 영화 포스터, DVD 표지, 예고편, 재출간된 ST에서 각 영화가 멀티모달리티 요소를 이용해 원작의 각기 다른 부분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텍스트에 나타난 TT1과 TT2의 ST 해석의 차이점을 영화의 멀티모달리티 요소, 그중에서도 시각 이미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 4.2 텍스트

TT1은 ST와 마찬가지로 1861년 크리스마스에서 시작하여 네 자매의 성장 과정이 조의 내레이션과 함께 시간순으로 전개된다. 반면 TT2는 ST 시작 부분에서 7년이 지난 1868년 조가 직접 쓴 소설을 들고 출판사에 가면서 시작해 자매들이 성장한 ST 2부를 현재로 제시하고 이들의 어린 시절인 1부는 플래시백(flashback)으로 보여준다. TT2는 ST의 서사 구조 순서를 바꿈으로써 등장인물이 성인으로서 실연, 결혼, 경제적 독립, 가족의 죽음과 같은 현실에서의 문제를 직면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제시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TT1과 TT2의 차이점을 남성성과 여성성, 가족 간의 관계, 독립된 경제 주체로서의 여성, 다인종과 다문화성, 시작과 결말로 나누어 이들 주제를 시각 이미지가 어떻게 재현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 4.2.1 남성성과 여성성

본 절에서는 TT1과 TT2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의 재현 및 남녀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를 살펴보겠다. ST에서 저자 올컷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등장 인물에게 일어난 일과 인물의 행동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서술하는데 이때 보수주의의 성향을 드러내어 실생활에서는 여성주의자로 알려진 것에 반대된다(민경택 139). ST에서는 “여성스러운”, “남자다운”과 같은 평가어가 등장 인물에게 자주 쓰이며 주인공 네 자매에게 가



사와 가족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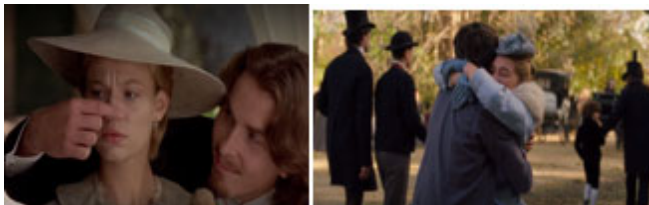
TT1은 마치 부인과 조의 대사를 통해 당시 남녀의 지위, 여성 투표권, 노예제도 등의 이슈에 대해 진보적 시각을 제시한다. 그러나 시각 이미지는 사회의 전통적 태도를 고수하는 이중적 모습을 보인다. 아래 <그림 5>의 왼쪽과 같이 멕과 조가 참석한 파티에서 약혼반지를 자랑하는 여성과 이를 부러워하는 미혼여성들을 보여줌으로써 결혼이 여성의 이상이자 목표라는 사회적 통념을 시각적으로 제시한다.

<그림 5> 전통적 여성의 이미지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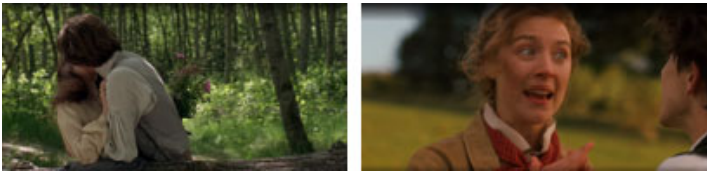
또한 TT1은 자매들이 봉대를 감고 빵을 굽고 아기를 목욕시키는 등 가사를 하는 모습을 반복 제시한다. <그림 5>의 오른쪽은 멕이 빵을 구운 뒤 쟁반을 내려 놓는 장면을 클로즈업한 것이다. 시각 문법에서 이미지 프레임의 크기는 보는 이와 대상 간의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므로 대상을 근접 촬영하는 경우 보는 이가 직접 사용하는 것처럼 제시된다(Kress and van Leeuwen, *Reading Images* 128). 따라서 시청자가 해당 장면에 몰입하고 흥미를 유발하며 이를 기억에 남기고 극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할 수 있다. 반면 TT2는 조가 집필하느라 잉크에 얼룩진 손을 클로즈업해 여성의 역할에 대해 전달하는 메시지와 강조하는 바가 다르다.

<그림 6> 에이미와 로리의 재회



<그림 6>은 막내 에이미와 옆집 소년 로리가 성인이 되어 유럽에서 재회하는 장면을 비교하였다. 왼쪽은 TT1에서 그림 그리기에 집중한 에이미에게 로리가 다가가 코를 꼬집는 모습이다. 이러한 동의 없는 신체적 접촉에 대해 에이미는 놀라지만 불쾌해하지는 않고 오랜만에 만난 로리를 반가워한다. 이에 반해 TT2에서는 에이미가 마차를 타고 가다가 길을 걷는 로리를 발견하자 마차를 세우고 달려가 껴안는다. 이 외에도 TT1에서는 악수, 키스 등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접촉을 보여주는 여러 장면에서 대부분 접촉을 먼저 시도하는 주체가 남성이지만 TT2에서는 여성으로 제시된다.

〈그림 7〉 로리의 청혼



<그림 7>에서는 로리의 청혼이 TT1과 TT2에서 확연히 다르게 묘사된다. 왼쪽 그림 TT1에서 로리는 이제까지 친구로 지내던 조에게 갑자기 손을 잡고 키스를 한 후 청혼하는데 조는 급작스러운 신체 접촉을 거부하지 않는다. 그리고 조가 로리의 마음을 돌리려 부드러운 태도로 결혼할 수 없다고 설명하는데도 로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미소를 지으며 조를 회유하려 한다. 반면 그림 오른쪽 TT2에서는 사랑을 고백하는 로리에게 조가 정색을 하고 눈을 마주 보고 손가락으로 로리를 가리키며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로리는 격정적으로 비탄에 빠진 태도를 보인다. TT1에서는 조가 로리의 적극적 구애에 당황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TT2에서는 조가 이성적이고 강하게 반박하는데 로리는 이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 이는 남성과 이성(理性)을 동일시하고 여성을 감성(感性)과 동일시하는 과거의 이분법 및 이를 반영한 과거의 영상물과 다른 모습이다.

#### 4.2.2 가족의 모습

TT1과 TT2는 가족의 모습을 다르게 묘사한다. TT1은 부부의 모습을 유표적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TT2는 부부의 모습을 현대적이고 수평적 관계로 나타낸다. 또한 부모와 자녀의 모습도 다르게 제시한다. TT1에서 부모와 자녀는 수직 관계이다. 자매들의 어머니 마미(Marmee)가 가정 및 자매들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하며 자매들은 이를 따르고 결혼 등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어머니에게 조언을 구하고 어머니의 판단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인다. ST에서 마치 씨는 오랜 기간 전쟁에 참전했다가 1부의 마지막에 돌아오고 2부에서도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으므로 ‘가장의 부재’는 널리 알려진 원작의 주제이기도 하다. TT1은 이러한 가장의 부재를 마미가 ‘여성 가장’의 역할을 하며 딸들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8> 플럼필드 학교 설립 결정



<그림 8>의 왼쪽은 TT1에서 마치 대고모가 유산으로 물려준 집을 마치 부인이 학교로 만들자고 제안하는 모습이다. ST와 TT2에서는 저택을 학교로 운영하자는 의견을 내는 주체가 조이다. 그러나 TT1에서는 마치 부인이 세 자매에게 “학교를 만들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조가 “학교요?”라고 되물자, 조에게 다가가 “멋지지 않니?”라고 묻고는 조의 머리를 쓰다듬고 맥과 에이미를 데리고 거실을 나간다. 이 장면에서 마치 부인은 화면 구도상 나머지 세 인물의 시선이 모이는 중심부에 위치해 마치 부인이 딸들을 이끌고 딸들은 어머니를 따르는 관계임을 보여준다. TT1에서 가장 강인한 인물이자 페미니스트의 목소리를 내는 인물은 어머니이다(우승정 102). 한편, 부인의 시선은 화면 왼쪽을 향하는데 시각 문법에서 왼쪽은 과거를 나타내므로(Machin 139) 부인은 기성세대를 대표한다. 또한 마치 부인이 나간 뒤 조는 아무 말 없이 집을 둘러보

며 나가는 장면으로 이어져 기성세대가 일방적으로 제시한 의견에 대해 자녀가 반박 하거나 부모와 자녀가 함께 논의하는 모습이 없이 마치 부인의 제안이 조에 의해 실현될 것임을 암시한다.

〈그림 9〉 가족의 모습



TT1과 TT2가 제시하는 이상적 가족의 모습도 차이가 있다. 위 왼쪽은 TT1 후반부에서 맥이 쌍둥이를 낳은 뒤 기뻐하는 가족을 보여주는데 마치 한국의 전통적 가족 드라마의 결말에서 극중 갈등이 결혼, 임신, 출산을 통해 해소되고 가족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또한 맥의 남편 브룩 씨가 방에 들어간 뒤 남성인 브룩 씨의 시각에서 카메라가 해당 장면을 관찰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카메라의 초점은 침대에 누워 있는 맥, 쌍둥이를 안은 마치 부인과 가정부 한나(Hannah), 이후 쌍둥이에게로 이동하여 오롯이 남성의 관점에서 출산 후의 광경을 바라보며 시청자의 시선 역시 출산의 주체인 맥이 아니라 관찰자로서 남성의 시선에 이입된다. ST에서는 해당 장면은 서술되지 않고 로리가 조가 안고 나온 아기들을 보고 에이미와 이름을 지어주는 데서 관련 부분이 끝나므로 맥의 출산을 남성이나 여성 한쪽의 시각에서보다는 가족 전체가 축하하는 일로 바라본다. 한편, TT2는 맥의 출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오른쪽은 TT2 결말에서 마치 부인의 생일을 축하하는 가족의 모습이다. 로리가 에이미와 낳은 아이를 안고 있고 테이블 가운데의 생일 케이크 앞에 조가 출판한 저서가 있어 부부가 자연스럽게 육아를 분담하는 모습과 조가 스스로 성취한 업적을 보여준다. 이 장면은 각색자이자 연출자인 거윅 감독이 작품에서 지속하여 강조하는 여성의 자아 찾기와도 연관되는데, 이에 대해 다음 절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 4.2.3 독립된 경제 주체이자 직업인으로서의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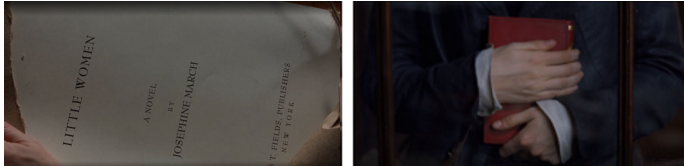
TT1과 TT2는 경제 활동의 주체이자 직업인으로서 여성의 모습도 다르게 묘사하고 있다. 작가 올컷의 분신과도 같은 주인공인 조는 결말 부분에서 자전적 내용의 소설인 『작은 아씨들』을 출판하게 되는데 TT1과 TT2가 보여주는 작가로서 조의 이미지와 책의 출판 과정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림 10> 작가로서 조의 태도



<그림 10>에서 TT1과 TT2는 조의 작가로서의 태도를 다르게 묘사한다. 왼쪽은 자신이 쓴 소설에 대해 같은 하숙집에 있는 독일인 남성 베어(Baer)의 의견을 들으러 가는 조의 모습이다. 조는 상기된 얼굴로 꽃을 상의에 달고 장식하며 베어의 하숙방으로 가는데 이는 작품에 대한 의견을 진지하게 구하기보다는 이성에게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조의 심경을 부각한다. 또한 이후 작품에 대한 비판을 듣고는 “당신의 높은 기준에 못 미쳐 미안하군요”라고 말한 뒤 반박하지 않고 방에 돌아가 우는 모습은 작가로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기보다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한 실망을 더 크게 전달한다. 반면 위 그림의 오른쪽은 TT2에서 조가 베어의 비판에 대해 논박하는 모습이다. 조는 베어를 정면으로 내려다보고 격하게 손가락질까지 하며 “평생 비평만 하고 작가도 못 될 거고”라고 말한다. 이는 TT1에서 베어가 조를 내려다보며 교사가 학생에게 조언하듯 대하고 조는 다분히 수동적으로 듣는 장면과 상반된다.

〈그림 11〉 조의 저서 출판 관련 이미지



<그림 11>의 왼쪽은 TT1 결말에서 베어가 조의 집에 방문해 놓고 간 원고 인쇄본을 조가 발견하는 장면이다. TT1에서는 베어가 조의 원고를 출판사에 맡겨 출판하고 이를 몰랐던 조가 인쇄된 원고를 보고 놀라고 기뻐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즉 조는 자신의 저서를 출판하는 과정에서 집필 후 베어에게 원고를 준 것 이외에는 능동적 역할을 하지 않은 채 수동적으로 인쇄물을 받아보고 있다. 이에 반해 TT2에서 조는 결말 부분에서 직접 출판사에 찾아가 편집장과 소설의 내용, 인세, 저작권을 논의하고 인쇄소에서 책이 제작되는 과정을 지켜본 뒤 <그림 11>의 오른쪽처럼 완성된 자신의 첫 출판 소설을 두 손으로 꼭 껴안는다. 즉 TT2에서 조는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되는 결과물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스스로 책임을 지고 관여한다.

#### 4.2.4 다인종과 다문화성

TT1에서 맥 역할을 맡은 배우 트리니 알바라도(Trini Alvarado)는 스페인 출신 여배우로, 이전까지 오직 영미권 배우들이 <작은 아씨들>의 주연을 맡은 데 비해 파격적인 캐스팅이었다고 한다(Spencer). 그러나 TT1이 노예 해방 문제를 놓고 미국의 남부와 북부가 대립한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흑인은 극중 인물로는 등장하지 않는다. TT1에 등장하는 외국인인 마치 가족이 도움을 주는 독일 출신 이민자 험멜(Hummel) 가족과 조와 결혼하게 되는 독일 출신 베어로 모두 백인이다.

&lt;그림 12&gt; 이민자와 교류 장면



<그림 12>는 험멜 가족과 교류하는 장면에서 TT1과 TT2의 차이를 보여준다. 왼쪽은 TT1에서 마치 부인이 마치 씨를 간병하러 집을 비운 사이 베스가 험멜 가족을 혼자 방문하는 장면이다. 문 앞에 나온 험멜 부인과 딸들이 독일어로 아기가 아프다고 호소하는데 베스는 이를 알아듣지 못해 난감해하며 아픈 아이를 받아 안고 울먹이고 결국 베스는 성홍열을 옮겨 위독해진다. 이처럼 외국인 이민자와 미국인 베스 간의 언어 차이로 인한 소통의 부재, 그리고 베스의 전염으로 이어지는 구성은 이민자의 유입으로 자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강화할 수도 있다. 그러나 ST에서는 베스가 험멜 가족을 방문한 뒤 조에게 “아기가 갑자기 악화된다 싶었지만 로트첸이 자기 엄마가 의사를 부르러 갔다고 하기에 내가 아기를 돌보면서 로티더러 좀 쉬라고 했어”라고 말하여(Alcott 171) 험멜 가족이 의사나 베스와의 소통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려진다. 또한 TT2에서도 그림 오른쪽과 같이 서로 영어로 대화하며 함께 아침 식사를 하므로 마치 가족과 험멜 가족 간에 소통의 어려움이 없고 물리적으로도 가까이 위치하여 이들의 심리적 거리도 가까우리라 추측할 수 있다.

&lt;그림 13&gt; 다인종 · 다문화 사회의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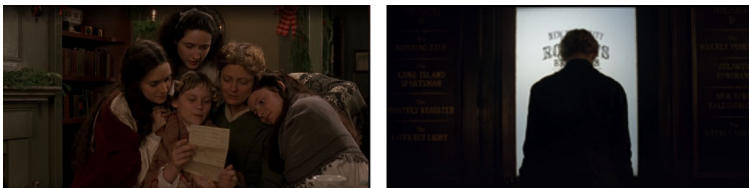
<그림 13>의 TT2 장면은 ST와 TT1에 없거나 달리 묘사되었다. 왼쪽은 베스가 위중

하다는 소식을 받고 집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흑인 남성 승무원이 잠든 조를 깨우는 장면이다. 흑인은 직업을 갖고 백인과 동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인물로 그려진다. 오른쪽은 조가 세운 플럼필드(Plumfield) 학교에서 다양한 인종의 남녀 학생이 마치 가족에게서 연기, 악기, 미술, 펜싱 등 여러 과목을 수업받는 모습이다. ST에서는 플럼필드 학교 학생의 구성에 대해 “명량한 혼혈아 꼬마도 ‘베어 동산’에서는 환영이었다”라며(Alcott 464) 남학생만을 교육하고 흑인 학생은 받지 않는 것으로 서술되지만 TT2에서는 조가 “남녀 다 다니는 학교로 만들 거야”라고 말하고 인종과 성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교육을 제공하는 현대적·이상적 교육 기관을 제시한다. 반면 TT1에서는 마지막 장면에서 조가 베어에게 “배우길 원하면 누구나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세우고 싶다고 말할 뿐 학교의 구체적 구성원이나 모습은 제시되지 않는다.

#### 4.2.5 도입과 결말

소설과 영화에서 인물·배경·사건을 제시하는 도입부와 작가와 감독이 주장하는 주제를 제시하며 마무리하는 결말부는 중요한 부분이다. TT1과 TT2는 도입과 결말에서 모두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그림 14〉 시작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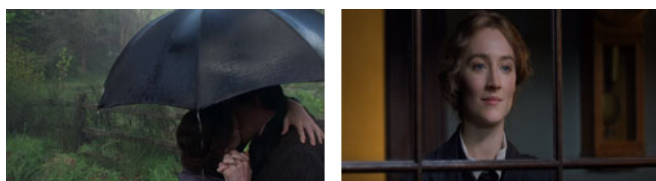


TT1은 마치 가족이 사는 지역의 겨울 크리스마스 풍경을 보여주며 조가 “그 어두운 시절에 우리는 우리만의 불빛을 만들어 갔다”라며 과거를 회상하는 내레이션으로 시작한다. 이어 봉사를 마치고 귀가한 마미를 자매들이 맞이하고 참전한 아버지의 편지를 함께 읽는 장면으로 연결되어 앞서 결텍스트 예시와 동일하게 크리스마스 가족 영화 분위기를 강조한다. 반면 TT2는 출판사에 찾아간 조의 뒷모습으로 시작한다. 거위



감독은 웹상에 공개한 각본에서 이 장면을 조가 “경기를 앞두고 링에 들어서는 권투 선수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다”라고 묘사한다(Arthur). 조가 남자만으로 가득 찬 출판사에 혼자 들어가 편집장을 찾아가는 모습은 조가 남성 중심의 세계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기가 녹록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는 원작자 올컷의 분신과도 같은 조가 여성 작가로서 부딪히는 현실, 그리고 TT2 감독 거윅이 남성 중심의 영화계에서 여성 감독으로서 직면하는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King).

〈그림 15〉 결말 장면



TT1과 TT2의 결말 또한 큰 차이를 보여준다. TT1은 위 그림 왼쪽처럼 조의 출판 원고를 놓고 돌아가는 베어를 조가 쫓아가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우산 속에서 두 사람이 키스하는 장면에서 끝나 전형적인 할리우드 로맨스물의 엔딩 장면과 동일하게 끝맺는다. TT2에서도 해당 장면이 있지만 조가 대시우드(Dashwood) 편집장과 『작은 아씨들』 출판 조건을 논의하며 여주인공을 결혼시켜야 한다는 편집장의 의견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인 뒤 연결되기에 현실의 조와 소설 속의 조가 교차하며 마냥 달콤하기 보다는 씁쓸하기도 하다. 그러나 영화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조가 쓴 소설 『작은 아씨들』이 출판되는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플럼필드 학교에서 마치가족이 학생들을 교육하는 장면과 마미의 생일 파티 장면이 교차한다. 가장 마지막에는 <그림 15>의 오른쪽과 같이 출판된 책을 받은 조가 계속 출판 과정을 보며 감회어린 표정을 지으며 끝이 난다. 이와 같이 TT2는 익명으로 흥미 위주의 통속 소설을 쓰던 조가 진정한 의미의 작가로 성장한 모습과 마치 부부, 그리고 세 딸의 남편과 자녀로 구성된 가족이 각자의 재능에 따라 학교에서 다양한 인종과 성별의 학생을 가르치는 장면으로 마친다. 이는 거윅 감독이 각색자로서 원작을 현재의 사회상과 관객의 사

고라는 맥락에 맞게 재해석한 이상적 결말로 남녀가 동등한 위치에서 능력을 펼치는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 5. 논의 및 결론

소설을 각색한 영화의 경우 각색자와 감독의 시각에 따라 원작의 주제 구현 방향이 달라진다(민경택 139). 조성은(Sung-Eun Cho)은 제인 오스틴(Jane Austen)의 소설을 각색한 영화의 사례에서 제작 당시의 여성에 대한 인식이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33).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작은 아씨들』의 각색 사례에서도 이러한 점을 볼 수 있다. 분석 결과 TT1은 이전에 영화화되었던 <작은 아씨들>에 비해 여성 제작자, 각본가, 감독으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했고 대사에서 참정권, 여성 교육 등을 언급함에도 불구하고 결텍스트와 텍스트의 시각 이미지에서 나타난 남성성과 여성성,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다인종·다문화의 묘사 등에서는 새로운 시각을 전달하기보다는 기존의 사회 통념을 보여주는 한계를 나타냈다. 반면 TT2는 결텍스트와 텍스트 모두에서 멀티모달리티 요소를 활용해 남성과 여성 중 어느 한쪽이 수동적이지 않게 동등하게 제시하고 여성이 독립적으로 능력을 펼치고자 진지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강조했다. ST에서는 가볍게 언급된 조의 첫 책 출판, 베스의 바닷가 휴양 같은 사건들이 TT1에서는 생략되지만, TT2에서는 변화하거나 자세히 묘사되는데 이를 통해 주인공 조가 당시 여성 작가로서 겪는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고 진정한 의미의 작가로 변모하는 동기 부여를 받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또한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도 전통적 상하 관계보다 평등하게 그렸고 다양한 국적과 인종의 인물이 스스로없이 상호작용을 하는 장면에서 각색자인 감독이 원작을 이전의 각색 영화보다 현시대에 맞게 재해석하고 이를 영상물의 시각 이미지로 제시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1994년에 비해 2019년에는 해당 영화의 관객층이 보다 양성평등,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인종 등의 측면에서 평등하고 다양해진 측면을 반영한 재번역이자 원작 텍스트의 재맥락화인 다시쓰기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TT2가 ST와 TT1보다 남녀 간, 가족 구성원 간의 위상을 더욱 수평적으로 묘사하고 인종적 다양성 등의 측면에서 영화 상영 시점의 관객에게 일반적인 시각을 반영한 한편, 원작의 2부에 등장한 결혼 후의 현실을 보여준 장면들에서는 원작 소설에 가깝게 전달한 부분도 있음을 알 수 있다. TT1은 1부의 자매들의 어린 시절 후 2부의 분량은 조가 베어와 사랑을 확인하는 장면에서 영화를 끝맺고 2부의 주요 내용인 멕과 에이미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멕이 쌍둥이를 출산한 장면 외에는 많은 부분을 삭제한 탓에 크리스마스 시즌 가족 영화의 성격과 남녀가 연애와 갈등을 겪은 뒤 결혼으로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일반적인 로맨스물의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반면 TT2의 경우 원작 소설의 2부인 결혼 후의 현실을 마주하는 부분을 영화의 상영시간에서 크게 할애하여 연애 뒤 결혼에서 극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 다음의 현실에 직면한 자매들의 모습을 그린다. 원작 소설에서 서술한 현실적 측면을 반영했다는 점에서는 현대적 관점을 적용하는 한편 원작이 말하려는 바를 전달하고자 원작에 가깝게 재번역, 리메이크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이처럼 항상 그 자리에 존재하는 원작을 시대에 발맞추어 당대의 시각으로 재해석하는 데에서 리메이크가 재번역이자 다시쓰기로서 갖는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거위 감독은 인터뷰에서 15세까지 『작은 아씨들』을 수십 차례 읽다가 15년 만에 우연히 다시 읽었을 때 원작이 담은 현대적이고 특이하면서도 현재에도 시급한 주제에 놀랐다고 밝혔다(Gerwick). 또한 각색 과정에서 공들인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기도 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어릴 적 이 소설을 무척 사랑했다. 소설의 이야기가 나의 일부라 느꼈다. 나만의 경험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 소설을 다시 읽고는 충격을 받았다. 『작은 아씨들』이 이렇게나 모던한 소설인지, 이렇게나 동시대적인 이슈를 다루는지 새삼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뿐만 아니라 글을 쓰는 모든 작가들이 늘 고민하던 문제를 소설 역시 다루고

있다. 저작과 저작권의 문제라든지, 여성과 예술과 돈에 대한 생각들, 할 수만 있다면 그 주제를 영화에 그대로 반영하고 싶었고, ‘포스트모던 <작은 아씨들>’로 재창조하고 싶었다. (이주현)

이처럼 19세기에 당대를 배경으로 쓴 원작에 담긴 주제를 현 21세기의 관객에게 공감을 자아낼 수 있게 TT2의 각색자이자 감독은 재번역 번역자와 같이 번역 당시의 맥락을 적용하여 원작을 다시쓰기 했으며 시각 이미지는 이를 뒷받침했다 하겠다.

본 연구는 TT1과 TT2의 겹텍스트와 텍스트의 시각 이미지를 중심으로 멀티모달리티 요소를 분석하였다. 원작 소설 『작은 아씨들』이 지금까지 여러 차례 리메이크되면서 제작 당대의 상황을 반영해 왔듯이 2019년 작 영화는 기존 작품에 비해 더욱 현대적 시각을 제시했으며 이를 위해 멀티모달리티 요소가 효과적으로 기능했다는 점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TT1과 TT2가 번역된 텍스트의 언어적 요소인 음성 언어와 활자 언어, 즉 대사와 자막을 더욱 심도 있게 함께 분석하여 연구를 발전시킴으로써 총체적으로 TT1과 TT2, 그리고 기호 간 번역 산물로서의 차이점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각색은 동일한 이야기를 다른 시각에서 서술함으로써 다른 해석을 만들어낸다. 오늘날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가 장르와 국경을 넘나들며 각색되고 리메이크되고 있으며 원작의 탄탄하고 사랑받는 이야기와 팬층을 확보한 각색은 시청률과 흥행을 보증하기에 많은 드라마와 영화 등의 영상물이 각색물이라는 점을 볼 수 있다. 앞으로도 각색 및 리메이크 작품 제작은 꾸준히 지속되리라 전망되며 이때 성공 요인은 시대와 관객을 고려하여 원작을 시의적절하게 해석했는지 일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본 연구가 각색과 리메이크 영상 텍스트 분석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도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인 용 문 헌

- “각색.”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EA%B0%81%EC%83%89>. 2025년 6월 19일 접속.
- 강지혜. 「출판 번역과 텍스트의 ‘재맥락화’: [셀프헬프] 의 번역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8권 1호, 2007, 7-36쪽.
- 곽명동. 「‘작은아씨들’ 글로벌 2억불 돌파, “전세계 극장 재개봉 결과” 주목 [해외이슈]」. 『마이데일리』, 2020년 6월 23일, <https://mydaily.co.kr/page/view/2020062317269303379>.
- 네이버 시리즈온. “<작은 아씨들> 부가 영상”, 2020.
- 마승혜. 「페미니즘 시각에서 문학번역 다시 하기 — [작은 아씨들] 번역을 중심으로 현상 및 요인 분석」. 『통역과 번역』, 22권 1호, 2020, 53-78쪽.
- 민경택. 「올롯의 [작은 아씨들]: 소설과 영화의 서사구조와 주제구현의 차이」. 『신영어영문학』, 44호, 2009, 49-67쪽.
- 박건영. 「번역으로서의 각색 —시각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5.
- 박지희. 「문학 텍스트의 영화적 변형에 관한 연구: 라클로의 [위험한 관계] 와 두 영화를 중심으로」. 『한국프랑스학논집』, 53호, 2006, 407-24쪽.
- 배종옥, 신용관. 「코로나 와중에 선전하고 있는 ‘작은 아씨들’의 힘」. 『주간조선』, 2020년 4월 20일, <https://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15585>.
- “번안.”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2025,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EB%B2%88%EC%95%88>. 2025년 6월 19일 접속.
- 선영화. 「그림책에서 애니메이션으로의 시각기호 번역 연구 — The Lost Thing

- 각색의 스크포스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8권 1호, 2016, 75-102쪽.
- 손선우. 「[영화선우] “여자에게 필요한 게 사랑뿐? 지긋지긋”, ‘작은 아씨들’」. 『뉴스민』, 2020년 2월 25일, <https://www.newsmin.co.kr/news/45943/>.
- 신나안. 「영화포스터에 나타난 사회적 약자로서의 노인 이미지의 “다시쓰기” 번역 전략」. 『문화와융합』, 46권 2호, 2024, 355-66쪽.
- 신나안, 신진원. 「영화포스터 번역에서의 상호관계적 기능 연구: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8권 2호, 2017, 97-126쪽.
- 신정은. 「1조3000억 책값...‘바비’ 여성 감독 얼마 벌었나 [신정은의 글로벌富]」. 『한국경제신문』, 2023년 8월 8일,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8070995i>.
- 우승정. 「페미니즘 각색: 두 개의 『작은 아씨들』 영화 비교」. 『현대영어영문학』, 65권 4호, 2021, 93-119쪽.
- 윤미선. 「영상 번역의 결텍스트: 한국 영화 번역본의 오프닝 크레딧 분석」. 『번역학연구』, 21권 2호, 2020, 165-224쪽.
- 이경희. 「소설에서 만화로의 각색에서 재현된 시각문법 분석: 조지 오웰의 [1984]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3권 2호, 2022, 191-224쪽.
- 이문행. 「리메이크 유형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9, 17-20쪽.
- 이상빈. 「국내 젠더 번역서 표지의 이데올로기: 멀티모달리티 분석」. 『한국번역학회 2019년 봄 학술대회』, 2019년 4월 20일,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 이선우. 「시각문법에 기반한 한국문학작품 영어 번역서 표지 분석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3.
- 이자혜. 「"재창조(re-invention)로서의 리메이크 : <현기증>의 계승과 변형으로서의 <환송대>」.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17권 1호, 2013, 93-113쪽.
- 이정국. 「케이프 피어의 리메이크 영화 비교 연구」. 『영화연구』, 35권, 2008,

259-81쪽.

이주현.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 ②」 <작은 아씨들> 그레타 거윅 감독, “엔딩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이 즐거웠다”. 『씨네21』, 2020년 3월 12일, [https://cine21.com/news/view/?mag\\_id=94819](https://cine21.com/news/view/?mag_id=94819).

이지영. 「번역과 문학정전(正典)의 시대적 다시쓰기: 소설 [아큐정전(阿Q正傳)] 한역본(韓譯本) 분석을 중심으로(1978~2018)」. 『번역학연구』, 20권 5호, 2019, 77-106쪽.

정하은. 「번역에서의 결텍스트 연구: 『위대한 개츠비』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0.

조유경. 「작은 아씨들」 전 세계 영화제서 30개 수상: 154개 노미네이트」. 『스포츠통아』, 2020년 1월 8일, <https://sports.donga.com/ent/article/all/20200108/99131254/2>.

최희경. 「번역서 표지의 변이 양상에 관한 기호학적 고찰」. 『통번역학연구』, 15권 1호, 2011, 441-64쪽.

홍승연. 「텍스트로서 라이선스 뮤지컬 번역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언」.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Alcott, L. M. *Little Women*. Amulet Books, 2019.

Altahmazi, Thulfiqar H. M. “Creating Realities across Languages and Modalities: Multimodal Recontextualization in the Translation of Online News Reports.” *Discourse, Context and Media*, vol. 35, no. 3, 2020, <https://doi.org/10.1016/J.DCM.2020.100390>.

Arthur, Kate. “Read Greta Gerwig’s ‘Little Women’ Screenplay (Exclusive).” *Variety*, 19 Dec 2019, <https://variety.com/2019/film/news/little-women-screenplay-greta-gerwig-full-script-1203447712/>.

Batchelor, Kathryn. *Translation and Paratexts*. Routledge, 2018.

- Bateman, John. A., and Karl-Heinrich Schmidt. *Multimodal Film Analysis: How Films Mean*. Routledge, 2013.
- Borodo, Michal. "Multimodality, Translation and Comics." *Perspectives*, vol. 23, no. 1, 2015, pp. 22-41.
- Chan, Leo. "A Survey of the 'New' Discipline of Adaptation Studies: Between Translation and Interculturalism." *Chinese Translation Studies in the 21st Century*, edited by Roberto A. Valdeon, Routledge, 2017, pp. 11-18.
- Cho, Sung-Eun. "Intertextuality in the Novels and Films of Jane Austen." Disserta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05.
- Evans, Jonathan. "Film Remakes, the Black Sheep of Translation." *Translation Studies*, vol. 7, no. 3, 2014, pp. 300-14.
- Francesconi, Sabrina. "Short-film Adaptations of Munro's Stories in the 1980s. A Multimodal Stylistics Analysis." *Lingue e Linguaggi*, vol. 33. 2019, pp. 87-99.
- Gerwig, Greta. "Greta Gerwig on Her 'Little Women' Film Adaptation." *All Things Considered*, interviewed and hosted by Michel Martin, National Public Radio, 22 Dec 2019, <https://www.npr.org/2019/12/22/790631863/greta-gerwig-on-her-little-women-film-adaptation>. Transcript.
- Gottlieb, Henrik. "Multidimensional Translation: Semantics Turned Semiotics." EU-High-Level Scientific Conference Series, *MuTra*, 2005, pp. 33-61.
- Hutcheon, Linda. *A Theory of Adaptation*, 2nd ed., Routledge, 2013.
- Jewitt, Carey, et al. *Introducing Multimodality*. Routledge, 2016.
- Kaindl, Klaus. "A Theoretical Framework for a Multimodal Conception of Translation." *Translation and Multimodality: Beyond Words*, edited by Boria Carreres, Noriega-Sánchez, and Marcus Tomalin, Routledge, 2020, pp. 49-70.



- King, John Paul. "Little Women a Smart, Richly Realized Period Romance." *Los Angeles Blade*, 26 Nov 2019,  
<https://www.losangelesblade.com/2019/12/19/little-women-a-smart-richly-realized-period-romance-2/>.
- Kress, Gunther, and Theo van Leeuwen. *Multimodal Discourse*. Arnold, 2001.
- \_\_\_\_\_. *Reading images: The Grammar of Visual Design*, 3rd ed., Routledge, 2021.
- Little Women*. Directed by Gillian Armstrong, Columbia Pictures, 1994.
- Little Women*. Directed by Greta Gerwig, Sony Pictures, 2019.
- Machin, David. *Introduction to Multimodal Analysis*. Bloomsbury, 2007.
- McIntyre, Dan. "Integrating Multimodal Analysis and the Stylistics of Drama: A Multimodal Perspective on Ian McKellen's Richard III." *Language and Literature*, vol. 17, no. 4, 2008, pp. 309-34.
- Munday, Jeremy.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4th ed., Routledge, 2016.
- Pérez-González, Luis. *Audiovisual Translation: Theories, Methods, and Issues*. Routledge, 2014.
- Spencer, Ashley. "'Little Women': An Oral History of the 1994 Adaptation." *New York Times*, 12 Sep 2019,  
<https://www.nytimes.com/2019/09/12/movies/little-women.html>.
- Tahir Gürçağlar, Sehnaz. "Retranslation."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edited by Mona Baker and Gabriela Saldanha, Routledge, 2020, pp. 484-89.
- Wong, Dorothy. "The Remake as a Translation: Localism, Globalism and the Afterlife of Horror Movies." *Translation Quarterly*, vol. 66, 2012, pp. 21-30.

## Abstract

### The Remake Strategies of Two *Little Women*: Focusing on Multimodality

Park, Kunyoung

Kyung Hee Cyber University

Cho, Sung-Eu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study compares two film adaptations of the classic American novel *Little Women*: the 1994 and 2019 versions. The study examines how each film functions as a retranslation of the original text,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contemporary elements emphasized in the 2019 adaptation. Treating film as a multimodal text that employs audiovisual resources, the study focuses on the visual images in both the paratexts and texts of both films. The analyzed visual images include character portrayals, interpersonal interactions, and representations of the period's social context. Kress and van Leeuwen's visual grammar is the primary analytical tool employed. The analysis finds that the 1994 film largely conforms to traditional social norms concerning gender roles, family dynamics, and racial and cultural representation. In contrast, the 2019 adaptation offers a more modern interpretation of gender relations and family roles, along with a more inclusive representation of racial and ethnic diversity. These changes can be read as a feminist reinterpretation that reflects contemporary values of equality and inclusivity. Accordingly, the adaptation functions as both a retranslation and a rewriting that recontextualizes the novel for

modern audiences. Situating these adaptations within the broader framework of genre transformation and remake culture, the study underscores the role of translation practices in the cultural industry.

**Key Words:** adaptation, remake, retranslation, feminism, visual grammar

논문접수일: 2025.5.15

심사완료일: 2025.5.30

게재확정일: 2025.6.08

이름: 박건영 (제1저자)

소속: 경희사이버대학교 미국문화영어학과 강사

이메일: kypark1203@hufs.ac.kr

이름: 조성은 (교신저자)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통번역학과 교수

이메일: secho@hufs.ac.kr

